

투데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착공식

한국농어촌공사 신사옥 착공식이 8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에서 열렸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강운태 광주시 장, 박준영 전남지사,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발파 버튼을 누르고 있다. /기자 김진수(jeans@kwangju.co.kr)

농어촌公 나주혁신도시 이전 첫 삽

2014년 9월 준공...본사 직원 730명 이전

농업인·지역민들에 개방 '열린 청사' 목표

한국 농어촌공사가 나주시 금천면에 위치한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기 위해 첫 삽을 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8일 나주시 금천면 사옥 부지에서 신사옥 착공식을 가졌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을 계획하는 15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정사업정보센터·한전·전력거래소·전파진흥원·한전KPS에 이은 6번째 착공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강운태 광주시장, 박준

영 전남지사,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최인기 국회의원, 임성훈 나주시장, 국토해양부 관계자,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광주·전남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방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사옥이 전을 추진해 왔다.

오는 2014년 9월 준공될 예정이며, 730여명의 본사 직원이 이전한다. 특히 신사옥은 사람·자연·건축물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농업인 및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는 '열린 청사'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사옥 건설과정에 지역업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지난 2005년 광주·전남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후 '지방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사옥이 전을 추진해 왔다.

공사는 앞으로 자체체, 지역 민간기업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정 생활산업을 러스터, 친환경 복합농업단지 조성, 한방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등 공사의 촉진된 기술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순 사장은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개발 방향을 제시해 도·농간 균형개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광주와 '농도인' 전남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 적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732만 7000㎡로 인구 5만명이 거주하는 자족형 도시로 건설된다. 현재 부지조성률은 92%에 이르며, 국토해양부는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올해까지 공동주택 6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 각 1개소를 개교 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직원자녀 공무원 특채
주택대출 이자 지원
배우자 직장 알선까지...

나주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가족 모셔라”

전국 자체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 자녀를 공무원으로 특채하고 배우자의 직장을 알선하는 하면 자동차 구입비 할인과 맞선까지 주선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전 기관 직원들이 주말부부나 출퇴근을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가족들까지 거주지를 옮겨 올 수 있도록 지역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나주시가 가장 빨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주시는 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 특채를 비롯해 시비를 들여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연 100만원씩 5년

간 지급하기로 했다. 정착지원을 위한 전답반도 꾸리고, 직원의 배우자의 직장을 알선하는 전답창구를 개설했다.

또 문화·교육 기반시설을 확장해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을 꺼리는 이전 기관 직원들을 겨냥,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 영어체험교실을 열고 방과 후 학습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 가족을 위한 주말농장 조성, 남도문화 탐방 등 문화 관련 지원책도 풍성하다.

해양경찰학교가 들어서는 여수 시도 자녀의 학교 배정·남도학숙 입주 우선순위를 주고 자체 외국어 학습, 문화행사 등에 할인·무료 초청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남도는 집을 사는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이전 기관 직원 모시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도 역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제주도는 주택분양 우선권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준다.

이 밖에 울산시는 이주정착비와

장학금 외에 자동차 구입비 할인까지 주진하고 있고, 대구시는 지난해 2차례 직원들을 초청해 문화탐방 행사와 미술 날짜 맞선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집을 사는 이전 기관 직원을 위해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같은 '이전 기관 직원 모시기'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북도 역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제주도는 주택분양 우선권과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작: 김민정 기자

제작: 김민정 기자